

10년 함께 한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 “변함없는 따뜻한 밥상”

1400여 곳 8000여 가지 음식 만나... 내년 1월 7일부터 4주간 특집 김민자·김혜수·김훈 출연

국내 최초의 푸드멘터리(음식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KBS 1TV 장수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이 내년 1월 7일로 방송 10주년을 맞는다.

2011년 1월 6일 처음 선보인 '한국인의 밥상'은 밥상에 담긴 한국인의 뿌리와 정서를 찾는 순례의 여정이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들과 그 밥상에 담긴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제작진이 국내외로 이동한 거리는 무려 35만여 km에 달한다고 한다. 지구를 8바퀴 이상 돈 셈이다. '한국인의 밥상'은 그동안 1천400여 곳을 돌며 각 지역의 8000여 가지 음식을 선보였다.

'한국인의 밥상'이 긴 시간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한 1등 공신은 역시 진행자인 배우 최불암(80·사진)이다.

최불암은 28일 KBS 사보통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KBS에서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진행했고, 관광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한 '웰컴 투 코리아'라는 시민단체에도 참가했다. 2008년에도 전통음식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숙수(요리사) 역할을 했는데 아마도 이 세 프로그램 중 한국 사회, 여행, 음식에 관심을 두게 됐고 이것이 '한국인의 밥상'과 만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10년간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소화에 대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최근 10년 전 촬영한 것을 보니 생각보다 크게 변한 게 없더라"며 "일찍부터 노인 역할을 맡았던 터라 보시는 분들도 지금의 모습이 예전과 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자주 들곤 하는데, '한국인의 밥상'도 그런 것 같다"며 "10년이 꽤 길고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변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정겨운 고향의 풍경이라든지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분들의 마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고 덧붙였다.

최불암은 기억에 남는 편으로는 남원의 추어탕을 꼽았다. 그는 "어르신이 동네 느티나무 아래에서 날 기다리다 내 손을 잡고 신문에 정성스럽게 써서 편지를 썼다.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더라"며 "내가 맛있다고 했던 산초를 써서 준 것"이라며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어 '한국인의

밥상'이 1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최불암은 마지막으로 장수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건강 유지 비결에 대해서는 "평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다 보니 몸이 고단한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술 한잔이 유일한 건강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했다.

KBS는 방송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1월 7일부터 4주간 특집을 마련했다.

1편에서는 고향·가족·어머니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밥상'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시청자들의 특별한 사연을 바탕으로 '내 인생의 한 끼'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2편과 3편에는 최불암과 그의 아내 김민자 씨, 그리고 아끼는 후배이자 '한국인의 밥상' 애청자이기도 한 배우 김혜수가 출연해 인생 밥상을 준비하는 과정이 담겼다.

4편에는 10년 결산과 더불어 새로운 10년을 열자는 의도로 최불암과 절친한 소설가 김훈이 출연해 한국 음식의 재현과 현대화에 힘쓰는 이들을 만나본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0분 방송. /연합뉴스

배우 차인표

“정체기 겪고 영화 ‘차인표’ 출연 결심”... 내년 1월 넷플릭스 공개

배우 차인표가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내 건 영화 '차인표'(사진)로 26년 연기 인생으로 쌓아온 이미지 탈피에 나선다.

차인표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넷플릭스 영화 '차인표'의 제작발표회에 자신의 하관이 프린트된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며 웃음을 샀다.

'차인표'는 왕년에 대스타였던 차인표가 전성기 영예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코미디 영화다. 사위를 하던 중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건물터미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영화를 연출한 김동규 감독은 "차인표로 시작해 차인표로 끝나는 영화"라며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배우가 대표적인 직업군이라고 생각했다. 한번 구축된 이미지에서 발버둥 치며 탈피하고 싶은 영화를 구상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영화의 주연이자 이야기 그 자체인 차인표는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자신이 배우로서 겪은 정체기 때문이라고 진솔하게 밝혔다.

차인표는 "사실 5년 전에 영화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했다"며 "영화 제목이 제 이름인 것도 부담스러웠고, 영화 속 차인표가 겪는 극심한 정체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안 그런데'라며 부정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 5년이 흐르는 동안 제 현실이 진짜 영화처럼 돼버렸다"며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정체기가 오면서 '내가 이것을 영화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차인표는 영화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희화화되는 데 따른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체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컸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이미지를 깨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중이 부여한 이미지를 왜 깨야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내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며 "영화에서 무너진 건물터미에 갇힌 것처럼 내 이미지에 포박당한 느낌이 있었다. 이를 확실하게 깨려면 '차인표' 만한 영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인 배우 신애라 역시 처음 영화를 제안받았을 때는 '굳이 이런 영화를 해야 하나?'는 반응이었지만, 지금은 영화에 목소리 출연을 하는 등 그를 응원한다고 했다.

영화에는 20여년간 차인표 곁을 지켜온 매니저를 모티브로 한 역할도 등장해 현실감을 더한다. 매니저 김아람 역을 맡은 조달환은 "차인표 선배님의 매니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로 들었는데 '아이 같다', '피터팬이 있다', '단순하게 접근해라'라고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내년 1월 1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광주 CBS 음악FM 2주년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방송

2021년 1월 4일 2시~4시



광주 CBS는 2021년 1월 4일부터 매일 새벽 2~4시 음악FM(98.1MHz)을 통해 김정아(사진)의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방송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CBS 음악FM 개국 2주년을 맞아 기획됐으며, 7~80년대 추억의 가요와 팝을 중심으로 제3세계 음악 등을 통해 추억을 전한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DJ 김정아는 30년 넘게 가요와 팝 등의 장르를 넘나들며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베테랑 DJ다. MBC 별이빛나는밤에DJ로 알려진 그는 현재 광주DJ협회 회장, (사)한국재즈협회 광주지회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광주교통방송 가요드라이브 진행도 맡고 있다.

김정아 DJ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통해 '그 때 그 다방', '영화 드라마 추억의 OST', '전설의 팝', '그런 날이 있었지' 등 청취자들에게 7~80년대 낭만과 추억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Btv서 가장 많이 찾은 인물은 '누구'? BTS

분야별 검색 순위 1위 '겨울왕국·신비아파트·런닝맨'

올 한해 SK브로드밴드 Btv를 활용해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은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공지능(AI) 서비스 '누구'(NUGU)를 탑재한 Btv에서 고객이 음성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를 집계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누구의 발화량도 전년 대비 85.4% 늘었다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다. 인물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어 아이유와 트와이스, 임영웅, 지코가 검색 순위에 올랐다.

Btv는 누구 셋톱박스나 리모컨에 가수의 이름을 말하면 해당 가수가 출연한 음악 방송이나 예능 등

프로그램의 출연 장면을 찾아주는 'AI 장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 가수의 이름을 검색하고 방송 출연분을 찾아본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한 드라마는 올해 초 방송된 '부부의 세계'였다. '이태원 클라쓰'와 '낭만닥터 김사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화 부문에서는 겨울왕국이,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신비아파트가, 예능 부문에서는 런닝맨이 1위를 차지했다.

AI 셋톱박스뿐만 아니라 일반 셋톱박스를 이용하더라도 리모컨으로 Btv 누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tv 누구는 VOD(주문형 비디오) 음성 검색과 날씨, 뉴스, 길찾기, 음악감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

“3년 전 사별한 남편, 나와 딸 지켜줄 것”...MBN ‘더 먹고 가’ 출연

배우 송선미(사진)가 3년 전 사별한 남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7일 MBN '더 먹고 가'에 출연한 송선미는 "격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며 "딸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오빠(남편)가 나와 딸을 잘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 3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다"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인지가 안 됐던 것 같다. 시간이 필요했다"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의 나날들을 회상했다.

사별한 남편에 대해서는 "항상 한결같은 사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라 싸워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줬다"며 "내가 그 사람이랑 사는 동안은 여왕 대접을 받으며 살았구나 싶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송선미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올해 여섯 살이 된 딸에게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는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공격해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면서도 "딸이 어려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커서 아빠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다른 기사를 접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일까 걱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남편과 함께 살 때 나중으로 미뤄둔 일들



이 많았는데 그게 후회됐다"며 "이제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려고 한다"고 달라진 인생관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과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서초동외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정부 살해당했다.

한편 전날 밤 9시 20분 방송된 MBN '더 먹고 가'의 시청률은 1.7%(비상장과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